

“인사청문회 이대론 안 된다”

정치권 ‘증인 불출석·부실 답변 등 문제점 노출’ 개선안 봇물

원희룡 “철저한 사전 검증을”… 전병현 위증 처벌 개정안 발의

8·8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증인 불출석과 자료 미비, 부실 답변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후보자들의 낙마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은 각종 개선안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비록 자진 사퇴로 인사의 부당성이 확인됐지만 현행 청문회 제도로는 총리 후보자 및 장관 내정자의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 능력 등을 내실있게 검증하기 어렵고 정치공방만 되풀이된다.

더 이상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향후에도 청문회 때마다 국민의 의혹을 확실히 풀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FBI·국세청·공직자윤리위 등이 233개 항목을 무기한 검증한다”며 “우리도 사전검증을 철저히 해서 조사청문회가 아니라 정책·인물청문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달여 사이에 잠깐 검증 과정을 거치는 현 인사청문회 시스템을 6개월여 걸리는 미국식 청문회에서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같은 당 정태근 의원은 28일 “청문회를 도덕성 검증과 직무수행 능력 검증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자료 제출과 증인·참고인 출석에 대한 강제력

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도덕성 검증은 해당 상임위에서 전문기관을 위촉해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법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민주당 전병현 정책위원장은 청문회 증인체택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청문회 대상자가 사생활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청문위원회들이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후보자가 하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청문회 전 사전예비조사 실시 ▲인사청문회 기간을 현행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연장 ▲검찰의 위증죄 신속수사 및 국회 보고 의무화 ▲서류제출 거부·허위제출 처벌 강화 ▲인사청문회 증인 체택 요건을 ‘위원회의 결의’에서 ‘제작위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완화 등이다.

전 의장은 “8·8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에서 위증, 자료제출 거부, 증인·참고인의 도피 등의 사례가 반복

되는 모습을 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용섭 의원은 “자료나 증인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꼭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증을 해도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서 “현재 인사청문회법은 많은 사안을 국정감사법에 위임하고 있는데, 청문회 취지에 맞게 청문회법을 섬세히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이희창 대표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인사청문회를 서류검증과 대면검증으로 이원화하는 방안 등을

답은 개선책 마련,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태호 총리내정자 사퇴와 관련해 언급하고 있다.

민주 당권주자 캠프 조직 대폭 강화

선대위원장 내정 등 전현직 의원 지원망 구축

10·3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선거 캠프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우선 각 캠프의 인적 구성을 있어서는 기존의 당권파인 정세균 전 대표의 진용이 가장 화려하다는 평가다.

캠프 좌장인 김진표 전 최고위원이 선대위원장에 내정된 가운데 김민석 전 최고위원과 우상호 전 대변인, 오영식 전 의원 등 486 혁신 그룹이 전략·기획 파트를 맡았다.

김영주 전 사무총장과 김교홍 전 수석사무부총장이 조직, 구민주계인 김유정 전 대변인이 공보를 맡았고, 원혜영 전 원내대표와 유인태 전 의원 등 정 전 대표와 함께 열린우리당을 끝까지 지켰던 중진 상당수도 가세했다.

과거에 비해 세가 위치된 정동영 상임고문은 조직 복원에 신경을 쓴 흔적

류하고 있다.

박주선 전 최고위원 진영에는 구민주계 출신이 총집결한 상황이다. 박상천 의원을 필두로 전·현직 의원 및 서울지역 구청장들이 두터운 지원망을 구축했다.

조직은 동교동계인 조재한 전 민주당 사무총장이 총괄하고 있고 김종현 전 사무부총장은 전략본부장을 맡았다.

전정배 의원은 이종걸 장세환 최문순 의원 등 비주류 모임인 쇄신연대 인사들이 주변에 포진했다. 민주화세력의 대모 격인 김희선 전 의원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시절 천 의원과 민생모임을 함께 했던 정성호 전 의원 등이 캠프의 핵심이다.

김효석 의원은 이낙연 의원 등 지역적으로는 호남, 이념적으로 중도 성향 의원들이 물밀에서 듣고 있다. 김재우 전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이 공보를 맡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孫, 강시장·박지사·권노갑 잇단 만남 ‘주목’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5개월 만에 출전 침기를 마친 뒤 첫 공식 정치일정으로 광주·전남을 찾아 폭넓은 정치 행보를 보여 주목된다.

10·3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설 유력 당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손학규 전 대표는 애초 25일~27일로 잡혀있던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하면서까지 민주당 덮밥인 광주·전남에서 당원과 지역민들을 폭넓게 만났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다른 당권주자와 달리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광

역단체장을 만나 당내 현안과 지역 현안 등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환담을 해 지역 정가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한, 지난 28일에는 동교동계의 좌장격인 권노갑 고문과 조찬을 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가에서는 손 전 대표가 이번 광주·전남 방문을 통해 동교동계를 비롯한 민주당의 정치적 고향인 광주·전남에서 정치적 기반을 크게 확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손 전 대표가 정계복귀 이후 사

실상 광주·전남지역을 첫 정치일

정으로 정하고 폭넓은 행보를 보인 것은 민주당 내 광주와 전남이 안고 있는 상징성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남다른 애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주변의 해석이다.

한나라당 당적을 가졌을 때에도 5·18 기념식 행사에는 단 한차례도 빠지지 않았던 일화로 유명했다. 이 때문에 이번 방문에서도 맨 처음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뒤 사

미를 두기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정일 연변행… 조선족자치주 첫 방문 가능성

정세균 전 민주 대표

29~30일 광주 방문

창춘서 후진타오와 회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태운 것으로 보이는 전용 특별열차가 28일 밤 창춘(長春)역을 출발해 연변조선족자치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엔지(延吉)의 한 소식통은 29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가 손님맞이 준비로 분주한 것으로 안다”며 “김 위원장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일단 김

위원장이 지난 26일 새벽 방중 때 이용했던 압록강 중간지점인 지안(集安)과 압록강 하류의 단동(丹東)에는 특별한 징후가 없으며 김 위원장의 특별열차가 다른 노선을 이용한 것 같다”고 말해 엔지 또는 투먼(圖們) 노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조선족 문제로 중국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연변조선족자치주를 방문한 적이 있으며,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다면 사상 첫 방문이 된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방중 이를 째인 27일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대표는 29일 오후 광주를 방문해 각 지역위원회 지자체를 만나 간담회를 하고, 30일에는 당연직 대의원인 광주시의회 의원과 광주지역 5개 기초의회 의장단 등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10·3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가 29~30일 1박2일간 광주를 방문해 당권과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본격적인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

정 전 대표는 29일 오후 광주를 방문해 각 지역위원회 지자체를 만나 간담회를 하고, 30일에는 당연직 대의원인 광주시의회 의원과 광주지역 5개 기초의회 의장단 등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광주시당위원장 결국 경선

김재균 오늘 출마선언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갑)이 30일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선거에 공식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시당위원장 선출이 결국 경선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30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

정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7일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광주시당 위원장 문제를 논의했으나 일단 시간이 촉박한데다 두 의원 누구도 포기 의사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합의 추대하기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결국 경선을 치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광주시당위원장 자리를 놓고 주류 층의 강기정 의원과 비주류 층의 김재균 의원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임동욱·최권일기자 tuim@kwangju.co.kr